

한국어 접속문과 중국어 접속문의 대조 분석*

- 명시어 구조 접속문을 중심으로

담홍달**

목 차

1. 들어가기
2. 명시어 구조의 세 가지 검증 방법
 - 1) 후행절 사건시 기준 해석의 여부
 - 2) 서법에 대한 제약
 - 3) 접속문의 부정 요소의 영향권
3. 한국어 명시어 구조 접속문과 중국어 접속문의 대응
4. 마무리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양정석(2010a)에서 제시한 ‘명시어 구조’의 접속문, 즉 한국어 ‘-거든, -거니와, -자, -더니, -는데, -지만, -으나, -기를, -기에, -은들, -더라도, -을지라도, -을망정, -기로서니, -지’에 이끄는 접속문과 이들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을 고찰하였다. 시간적 선후관계를 통한 검증과 후행절 서법에 대한 제약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검증을 실행한 결과, 중국어에서도 명시어 구조를 이루는 ‘...而且...’ 접속문, ‘要是...’ 접속문, ‘雖然...但是...’ 접속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어에서 명시어 구조를 이루는 ‘-기에’, ‘-더니’ 연결어미 문장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인 ‘因為...所以...’ 구문, ‘-은들’, ‘-더라도’, ‘-을지라도’, ‘-을망정’ 연결어미 문장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인 ‘即使...也...’ 구문은 명시어 구조를 이루지 않고 부가어 구조를 이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4단계 BK21+ 근대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교육연구팀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룬다. 중국어의 무표지 접속문도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

키워드: 접속문, 명시어 구조, 부가어 구조, ‘...而且...’ 접속문, ‘要是...’ 접속문, ‘雖然...但是...’ 접속문, ‘因為...所以...’ 접속문, ‘即使...也...’ 접속문, 무표지 접속문.

1. 들어가기

양정석(2010a: 385-439)에서는 한국어의 연결어미 ‘-거든, -거니와, -자, -더니, -는데, -지만, -으나, -기를, -기에, -은들, -더라도, -을지라도, -을 망정, -기로서니, -지’ 등이 ‘명시어 구조 접속문’이라고 하는 특징적 구조적 유형을 이룬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본고는 이 연결어미들이 이루는 접속문들의 통사적 특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명시어 구조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을 대조 연구하려고 한다.¹⁾

접속문의 하위 분류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최현배(1937/1971)에서는 한국어 복합문을 세 가지 하위 범주, 즉 포유문, 병렬문과 연합문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 연합문과 병렬문이 접속문이다.

접속문을 연합문과 병렬문으로 구분하는 최현배(1937/1971)의 문제는 그 구분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있다. 남기삼(1985)에서는 이 두 구조를 구별하는 통사적 기준을 세 가지, 즉 선행절 옮기기, 재귀대명사에 의한

1) Chomsky(1986)의 핵계층 이론(X-bar theory)에 따르면 모든 언어의 구(phrase)는 (a) 규칙에 의해 생성되는 ‘보충어(complement) 구조’, (b)에 의해 생성되는 ‘명시어(specifier) 구조’, (c)와 (d)에 의해 생성되는 ‘부가어(adjunct) 구조’로 이루어진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접속문 중 (c), (d)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가어 구조뿐만 아니라 (b)에 의해서 생성되는 명시어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이 본고의 주요 논점이다.

- a. $X' \rightarrow YP X$
- b. $X'' \rightarrow YP X'$
- c. $X' \rightarrow YP X'$
- d. $X'' \rightarrow YP X''$

조용, 선행행절 주어가 동일할 때 선행행절 주어가 생략되는 특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합문, 즉 종속 접속문은 접속문 아닌 부사절 내포문이라는 것이 그 결론이었다. 김영희(1988), 서정수(1994)는 이러한 구분 기준들을 가지고 접속문을 분류하되, 접속문을 종속접속문과 대등접속문으로 구별하는 종래의 관점을 유지한다.

임홍빈 외(1995)에서는 위와 달리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의 선행절이 모두 부가어라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접속문과 부사절 내포문은 형식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논점을 증명하는 통사적 기준들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양정석(2010a)에서는 임홍빈 외(1995)와 같이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이 통사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근거는 이전에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던 통사적 검증 방법들이 의도하는 것처럼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의 구분에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²⁾ 기존의 통사적 검증 방법의 문제점 외에도, 대등접속문

2) 위에서 말한 남기심(1985)의 세 가지 검증 방법 중, 첫째로 선행절 읊기기는 다음의 반례를 가진다.

a. 가. 친구는 떠나고 소년은 운동장에 혼자 남았다.

나. 소년은, 친구는 떠나고, 운동장에 혼자 남았다. (양정석 2010a: 411)

둘째, 재귀대명사에 의한 조용은 다음의 반례를 가진다. 대등접속문에서는 (b)와 같이 대비된다는 것이 남기심(1985)의 주장이나, 대등접속문에서도 (c)와 같이 가능하다.

b. 가. *자기의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고 철수는 기분이 좋았다.

나. 자기의 아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철수는 기분이 좋았다.

c. 자기 아들이 현재의 규모로 회사를 일으켜 세웠고, 김씨는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만을 대 주었다. (양정석 2010a: 413)

셋째, 선행행절 주어 생략의 검증 방법은 다음의 반례를 가진다.

d. 가. 시험을 통과했지만, 철수가 많이 울었다.

나. 시험을 통과했으나 철수가 많이 울었다.

이러한 증거에 따르면 남기심(1985)에서 대등접속문으로 다루어지던 ‘-고’ 접속문, ‘-지만/으나’ 접속문과 종속접속문으로 다루어지던 ‘-어서’ 접속문은 공히 각주 1의 ‘부가어 구조’를 이룰 뿐이다. 본고에서는 뒤의 (1)로 제시하는 연결어미들이 이들과 다른 ‘명시어 구조’를 형성하는 접속어미라는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을 형성하는 어미라고 인식되어온 것들 중에 명시어 구조를 이루는 어미들이 있고, 반면에 종속접속문을 이루는 어미라고 인식되어온 것들 중에도 명시어 구조를 이루는 어미들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³⁾

특히 선행절의 후행절 사건시 기준 해석이 가능한지, 후행절의 서법에 대한 제약이 있는지, 선행절이 후행절 내부의 부정소의 영향권 안에 드는지 등의 새로운 통사적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명시어 구조라는 접속문의 새로운 하위 범주를 분리해 내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어의 접속문은 명시어 구조, 부가어 구조, 보충어 구조의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중국어 접속문의 하위 분류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黎錦熙(1924)에서는 중국어 복문(複句)을 내포문(內包複句), 대등복문(等立複句), 주종복문(主從複句)으로 나눈다고 했다.

王力(1943/1985)에서는 중국어 접속문에 내포문(包孕句)을 인정하지 않고, 등립구(等立句)와 주종구(主從句)만 존재한다고 기술하였다. 이것은 접속문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관계가 대등 여부의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丁樹聲 等(1952/1999)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중국어 접속문을 병렬(並列)과 종속(偏正)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고 했다. 何元建(2011)에서는 생성문법의 관점 하에서 중국어 접속문을 대등복문(聯合複句)과 주종복문(主從複句) 두 가지로 분류했다. 鄧思穎(2019)에서는 같은 관점하에서 중국어 접속문을 대등복문(聯合複句)과 종속복문(偏正複句)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다.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에서처럼 접속문을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의 두 가지 하위 범주로 나누는 것이 관례다. 이 외에 呂叔湘·朱德熙(1952)에서는 중국어 접속문 선행·후행절의 논리적 의미관계에 따라 접속문을 병렬(並行) 관계, 전환(交替) 관계, 점진(遞進) 관계 등 10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들은 통사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의미적인

3) 종래의 연구에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연결어미들 중 ‘-지만, -으나’는 대등접속문을 형성하는 연결어미로, 그 외의 연결어미 ‘-거든, -거니와, -자, -더니, -는데, -기를, -기에, -은들, -더라도, -을지라도, -을망정, -기로서니, -지’는 모두 종속접속문을 형성하는 연결어미로 보아 왔다.

분류다. 이상의 경우에는 중국어 접속문을 분류하는 분명한 통사적 기준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또는 邢福義(2001)에서 제안한 것처럼 중국어 접속문을 인과 접속문(因果類複句)과 병렬 접속문(並列類複句)과 전환 접속문(轉折類複句)으로 나누는 삼분법(三分法)이 있었고 林裕文(1962/1987)에서 제안한 것처럼 중국어 접속문을 한계성 접속문(封閉性複句)과 비한계성 접속문(非封閉性複句)으로 나누는 접속문 선·후행절 구조의 상관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명시어 구조와 같은 접속문의 하위 부류를 설정하는 일은 없었다.⁴⁾

본고에서는 양정석(2010a)의 견해를 지지하고, 양정석(2010a)에서 제시한 통사적 검증 방법에 따라 ‘-거든, -거니와, -자, -더니, -는데, -지만, -으나, -기를, -기에, -은들, -더라도, -을지라도, -을망정, -기로서니, -지’ 접속문의 통사적 구조를 검토하고, 이들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들을 대조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니와’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의 ‘...而且...’ 접속문, ‘-거든’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의 ‘要是...’ 접속문, ‘-는데’, ‘-지만’, ‘-으나’, ‘-지’, ‘-기로서니’, ‘-더니’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의 ‘雖然...但是...’ 접속문이 명시어 구조를 가진다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4) 한 심사자는 중국어 접속문의 일부를 명시어 구조로 분석한 선행 연구 鄧思穎(2019), 何元建(2011)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何元建(2011)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聯合複句’라고 지칭했다. 여기에서 ‘而且’는 접속사(Conj)로 규정한다. 본고의 보문소를 접속사로 규정한 것 말고는 명시어 구조로 본 것은 같다. 그러나 이 구조를 설정하는 뚜렷한 통사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a. [ConjP [CP 小李走了]] [Conj 而且] [CP (她)還帶走了孩子]]

鄧思穎(2019)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속문의 통사구조를 제시했는데 이 중 ‘而且’는 머리성 본(핵어: head)인 보문소(C)로 본다는 점에서 何元建(2011)과 차이가 있다.

b. [CP1 [CP2 不但價錢貴]] [C1 而且] [TP 東西也不好]]

이 두 학자가 위와 같은 ‘...而且...’ 접속문을 명시어 구조로 설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고에서 다룬 세 가지 구문 중 하나에 대한 논의이고, 이 구조들을 세우는 통사적 검증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본고에서는 후행절 사건시 기준 해석의 여부와 후행절 서법에 대한 제약을 기준으로 명시어 구조 설정하는 분명한 통사적 증거를 제시했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2. 명시어 구조의 세 가지 검증 방법

양정석(2010a)에서 명시어 구조를 형성하는 연결어미들은 다음 (1)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연결어미 문장들은 다음 (2)에서 제시한 구조를 가진다. 즉 이 연결어미들은 선행절을 C'로 만들고, 후행절 CP를 명시어로 취하여 연결어미 문장 전체인 CP 구조를 형성한다.

(1) 명시어 구조를 형성하는 연결어미들:

-거든, -거니와, -자, -더니, -는데, -지만, -으나, -기를, -기에, -은들,
-더라도, -을지라도, -을망정, -기로서니, -지

(2)

	CP		
	/	\	
	C'		CP
	/	\	
IP		C	

그가 나가- -거든 e 철수에게 말해라.

이들이 새로운 구조인 명시어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본 근거는 후행절 사건시 기준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 연결어미의 후행절 서법에 대한 선택제약이 있다는 점, 그리고 선행절이 후행절 부정소의 영향권에 들지 않는 점이다.⁵⁾

중국어 접속문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접속문 중에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명시어 구조를 검증한 바가 없다. 한국어 접속문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중국어 접속문에서 이 세 가지 검증 방법을 적용해 본 결과, 중국어에도 한국어와 같은 명시어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 결과를 미리 보이기로 한다. 중국어에서도 ‘...而且...’ 형식의 접속문, ‘要是...’ 형식의 접속문, ‘雖

5) 다음 2장의 1), 2), 3)에서 각 검증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3)'의 구조에서는 C 범주 '而且'에 의해 투사되는 구의 명시어(CP)가 선행절이고, (4)', (5)'에서는 C 범주 '要是', '雖然'에 의해 투사되는 구문의 명시어(MP)가 후행절이다. 원리매개변인 이론(Principles & Parameters theory)에 의하면 보충어가 머리성분(핵어: head)에 앞서는지 뒤서는지의 사실은 머리성분 매개변인(head parameter)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부가어 또는 명시어의 어순에 대한 매개변인을 설정한 예가 없다. 부가어와 명시어는 그 피수식어의 왼쪽에 나타날 수도 있고, 오른쪽에 나타날 수도 있다. (3) 구문과 (4), (5) 구문이 공통적으로 명시어 구조를 이루지만 그 명시어의 순서는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접속문들이 명시어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검증 방법으로 양정석(2010a)에서 제시한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 ① 선행절의 후행절 사건시 기준 해석이 가능한가?
- ② 후행절 또는 선행절의 서법에 대한 선택제약의 사실이 있는가?
- ③ 선행절이 후행절의 부정 요소의 영향권에 드는 해석이 가능한가?

①, ②, ③에 의미하는 바를 다음에 1), 2), 3)에서 차례대로 설명하기로 한다.

1) 후행절 사건시 기준 해석의 여부

먼저 다음의 예문들을 같이 보기로 하자.⁷⁾

- (6) 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나. 바람이 불고 비가 왔다.
 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겠다.
- (7) 가. 바람이 불어서 날씨가 춥다.
 나. 바람이 불어서 날씨가 추웠다.
 다. 바람이 불어서 날씨가 춥겠다.
- (8) 가. 비가 오거든 우산을 사라.
 나. *비가 오거든 우산을 샀다.
 다. 비가 오거든 우산을 사겠다.

후행절 사건시의 변동에 따라서 선행절이 의존적으로 변동하는 사실을 (6)와 (7)에서는 관찰할 수 있다. (6)과 (7)에서는 후행절에 ‘-었-’, ‘-겠-’이 결합되어 후행절 사건시가 과거, 미래로 변동함에 따라, 선행절의 시간도 과거, 미래로 바뀐다. 이에 비해서 (8)에서는 그러한 의존적 변동의 사실을 관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거든’이 특수한 기능 즉 참조시(reference time)를 발화시 이후 시점으로 설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 ‘-어서’ 연결어미 문장이 부가어 구조를 이루는 데에 비해 ‘-거든’ 연결어미 문장이 명시어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양정석(2010b: 85)에서는 연결어미 절들 중에서 명시어 구조로 구분해 내는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로 이와 같이 후행절 사건시 기준의 해석을 체계적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즉 명시어 구조인 접속문들에서는 선행절이 전혀 후행절 시간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뒤따라오는 후행절은 연결어미의 명시어가 되기 때문에, (2)와 같은 구조에서

7) (6)의 예문들은 대등접속문으로 알려져 왔던 구조이고, (7)은 모두 종속접속문의 구조로 알려져 왔다. 이 두 가지 예문을 들은 이유는 (8)과 같은 ‘거든’ 문장이 이 두 경우와 달리 대등접속문도 아니고 종속접속문도 아니다. 제삼의 구조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기 위해서다.

후행절의 시간 요소가 그 절 경계(CP)를 넘어서 선행절에 통사적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결어미의 명시어인 후행절은 연결어미의 통사적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명시어 구조에서는 연결어미가 선행절과 후행절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명시어 구조는 이른바 ‘상대 시제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징이 있으며, 오히려 발화시 기준의 특정 시점을 참조시로 부여하는 기능을 가진다.⁸⁾ 이것은 명시어 구조의 연결어미가 선행절과 후행절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정석(2010b: 192)에서는 명시어 구조를 형성하는 연결어미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 기준은 참조시가 발화시의 이전이나, 동시냐, 이후냐 하는 차이이다.

(9) 가. 참조시를 발화시 이후 시점으로 설정: ‘-거든’

나. 참조시를 발화시 이전 시점으로 설정: ‘-자, -더니, -었던들, -기를, -기에’

다. 참조시를 발화시 시점으로 설정: ‘-지만, -으나, -거니와, -은들, -기로서니, -더라도, -을 지라도, -을망정, -지, -는데’

이러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시간적 선후관계의 해석이 후행절에 따라서 의존적으로 변동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연결어미들 자체가 시간적 선후관계의 해석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전의 중국어 접속문 연구에서 이와 같은 증명 방법을 이용하는 연구는 찾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중국어 접속문에도 명시어 구조라는 통사적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이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중국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많지 않아서 위와 같은 검증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시간 부사 ‘昨天’, ‘明天’을 이용하여 ‘-었-’, ‘-겠-’이 나타내는 바를 대신 표

8) 양정석(2010b: 184) 참조.

현하기로 한다.

2) 서법에 대한 제약

양정석(2010b: 92)에서는 명시어 구조를 가지는 연결어미 문장에서 시간적 선후관계 해석의 기준을 연결어미가 부여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연결어미가 후행절의 내용에 대한 선택제약을 부여함으로써 따라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동사가 그 논항을 선택제약하는 것과 같이 연결어미가 후행절의 내용을 선택제약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같이 보기로 하자.

- (10) 가. 철수가 병원에 가거든 간호사에게 그 선물을 전해라.
 나. 철수가 병원에 가거든 간호사에게 그 선물을 전하자.
 다. 철수가 병원에 가거든 간호사에게 그 선물을 전하겠다.
 라. *철수가 병원에 가거든 간호사에게 그 선물을 전한다.
 마. *철수가 병원에 가거든 간호사에게 그 선물을 전하느냐?

(10)에서 연결어미 ‘-거든’은 후행절이 ‘의도’의 서법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평서법과 의문법을 배제하는 것을 알 수 있다.⁹⁾ 이처럼 명시어 구조를 취하는 연결어미 문장에서는 서법을 중심으로 하여 후행절의 의미가 연결어미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특성을 가진다.

명시어 구조는 선행절 말미의 연결어미가 전체 문장인 구의 머리성분(핵어: head)이 되어 그 명시어인 후행절에 선택제약을 부과하는 것으로,¹⁰⁾ 명시어에 선택제약을 부여하는 현상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동사가 그 보

9) 여기서 ‘-거든’이 ‘의도’의 서법을 요구한다는 점은 이기갑(1987)의 논의를 근거하는 것이다.

10) (2)와 같은 통사구조에서 ‘C’ 범주인 연결어미 ‘-거든’이 ‘CP’ 범주인 전체 문장의 머리성분이 된다.

충어는 물론, 명시어인 주어에 선택제약을 부여하는 현상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선후관계의 해석에 있어서도 머리성분인 연결어미 ‘-거든’ 등이 그 보충어(선행절)와 명시어(후행절)에 시간적 의미에 대한 제약을 부여하는 것이다.¹¹⁾

중국어 접속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한 선례를 찾기 어렵다. 중국어 서법에 관한 연구 중 서퇴(2017)에서는 중국어에서 평서문 서법 요소는 어기조사 ‘吧, 呢, 的, 了, 來著, 啊’, 또는 무표지 서법 ‘∅’가 있고, 의문문의 서법 요소는 어기조사 ‘嗎, 啊, 呢, 吧’, 또는 무표지 서법 ‘∅’가 있고, 청유문의 서법 요소는 어기조사 ‘吧’가 있고, 명령문의 서법을 표현하는 어기 조사는 ‘吧, 了, 啊’, 또는 무표지 서법 ‘∅’가 있다고 했다. 본고에서는 각 서법의 요소들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요소를 선택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즉 평서문 서법은 무표지 서법 ‘∅’를, 의문문 서법은 ‘嗎’를, 명령문 서법은 ‘吧’를, 청유문 서법은 ‘吧’를 대표로 활용하려고 한다. 중국어의 접속 요소도 한국어의 연결어미처럼 후행절의 서법에 대한 선택제약을 부여하는 성질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논증 과정은 3장에서 보이기로 한다.

3) 접속문의 부정 요소의 영향권

양정석(2010a)에서는 대표적인 대등적 연결어미로 알려진 ‘-고’, ‘-거나’와 종속적 연결 어미로 알려진 ‘-어서’, ‘-어야’가 부정의 영향권과 관련하여 공통점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거든, -지만’ 접속문의 선행절은 부정의 영향권 안에 드는 해석이 아예 불가능하다. 전자의 ‘-고, -거나, -어서, -어야’에 이끌리는 선행절은 후행절 부정소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해석과 그렇지 않은 해석이 모두 가능함을 보였다.

(11) 가. 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오지 않는다.

11) 양정석(2010b: 190) 참조.

나. 철수가 가거나 영희가 가지 않는다.

(12) 가. 해가 떠서 날씨가 덥지 않다.¹²⁾ (선행절이 부정의 영향권에 드는 해석으로)

나. 눈이 와야 풀이 나지 않는다. (같음)

(13) 가. *철수를 만나거든 메모를 전하지 말아라. (같음)

나. *지진이 나지만 그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 (같음)

대등적 연결어미 문장으로 알려진 (11)과 종속적 연결어미 문장으로 알려진 (12)가 같은 특징을 가진다는 것은 문제점이다. 즉 (12)의 두 문장은 (11)의 두 문장과 같이 선행절이 부정의 영향권 안에 드는 해석과 들지 않는 해석을 모두 가진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접속문의 구조를 ‘대등’과 ‘종속’으로 나누는 기존 관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선행절이 후행절 부정 요소의 영향권에 드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양정석(2010a)에서 제시한 명시어 구조를 다른 부류들과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검증 방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13)에서는 후행절의 부정소로 인해 선행절이 부정의 영향을 받는 해석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들 접속문에서 연결어미 ‘-거든’, ‘-지만’은 전체 접속문의 머리성분으로서, 선행절을 C'로 만들어서 후행절을 명시어로 취하는 CP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선행 연구에서 ‘-거든’, ‘-자’ 연결어미의 문장은 종속접속문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문장들을 구조상 한 부류로 귀속시키는 것은 선행절의 C 범주인 연결어미가 후행절의 내용에 대한 선택제약을 부여하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연결어미인 C는 CP의 머리성분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 최대통어(m-command) 영역이 CP 전체에 미치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후행절에 부정소가 와서 부정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후행절 CP 내의 부정소의 영향력은 선행절 C'에 가해질 수 없다는

12) 이 표현은 해가 떠서 날씨가 더운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날씨가 덥다는 뜻을 표현할 수 있다.

것을 위 (2)의 통사구조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¹³⁾

중국어 문법 연구에서도 부정의 영향권에 관한 논의는 많이 있다. 鄧守信(1973/1975/2017)에서는 부정소의 영향력이 어순상 부정소의 뒤에 위치하는 성분에게 가해진다는 논의를 하였다. 沈開木(1984)에서는 부정문을 음운론적인 휴지(pause)의 유무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고 각각의 부정의 영향권에 대해 분석했다. 이 중에서 휴지가 있는 문장의 부정의 영향권은 문장 전체이고, 휴지가 없는 문장은 부정의 영향권이 목적어에까지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외에 구조주의 문법의 관점에 따른 연구인 陳平(1985), 袁毓林(2000)에서도 중국어에서 부정의 영향권이 부정소의 오른쪽에 놓인다는 논의를 하였다. 胡建華(2007)에서는 생성문법 이론 하에서 부정소의 영향권은 그것이 성분통어(c-command)하는 영역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선행 연구를 보면 중국어 문장에서 부정소의 영향력은 한 절을 넘어서 다른 절에 미치는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공통된 견해로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에서처럼 후행절의 부정소가 자신의 절을 넘어서 선행절에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은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③번 검증 방법을 중국어 접속문의 증명 과정에서 이용하지 않고, ①번과 ②번 검증 방법만을 활용해서 중국어 접속문에도 명시어 구조라는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3. 한국어 명시어 구조 접속문과 중국어 접속문의 대응

이 장에서는 한국어의 ‘-거든, -거니와, -자, -더니, -는데, -지만, -으나, -기를, -기에, -은들, -더라도, -을지라도, -을망정, -기로서니, -지’ 접속문을 대상으로 위에 제시한 두 가지의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그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도 같은 구조를 이루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13) 양정석(2010a: 423) 참조.

1) ‘-거니와’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

‘-거니와’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구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14) 이 식당은 음식도 맛있거니와 서비스도 좋다.

(這家餐廳食物好吃, 而且服務也很好。)

(15) 나는 그와 헤어졌거니와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다.

(我和他分手了, 而且再也不想見到他了。)

이상의 문장을 보면 ‘-거니와’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구문은 ‘...而且...’ 구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

중국어 접속문에서 주절의 역할은 후행절이 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而且...’ 접속문에서 후행절에 ‘昨天’, ‘明天’이 추가됨에 따라서 선행절의 시간 해석이 영향을 받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16) 哲洙玩遊戲, 而且去夜店。

(철수는 게임을 하거니와 클럽도 간다.)

(17) 哲洙玩遊戲, 而且昨天去了夜店。

(철수는 오늘/*어제 게임을 했고 어제 클럽도 갔다.)

(18) 哲洙玩遊戲, 而且明天要去夜店。

(철수는 오늘/*내일 게임을 하고 내일 클럽도 간다.)

(16)-(18)은 ‘...而且...’ 접속문에서 선행절을 동일한 형식으로 놓고 후행절의 시간 표현들을 달리해 본 것으로, 후행절에 ‘-었-’, ‘-겠-’과 대응되는 시

14) ‘...而且...’ 접속문은 ‘不僅...而且...’, ‘不但...而且...’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들 접속문의 선행절에 실현되는 ‘不僅’, ‘不但’은 접속 부사로 간주한다. 이들의 유무에 따른 구조적 차이는 없으며, 사소한 의미 차이만이 나타난다.

간 요소 ‘昨天’, ‘明天’으로 각각 그 시간 해석에 변화를 주었다. 후행절의 시간이 과거 또는 미래로 바뀔에 따라서 선행절의 시간이 의존적으로 바뀌는 관계가 포착되지 않는다. 위 중국어 문장들은 모두 문법적 문장이지만 (17)에서 후행절 사건 ‘去夜店’에 과거의 의미를 부여하는 ‘昨天’를 첨가하여도 선행절 사건 ‘玩遊戲’가 그에 따라 과거 시간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8)에서도 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而且...’ 접속문의 후행절에 과거, 미래의 의미를 부여해도 선행절이 이에 따라 과거, 미래의 시간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而且...’ 접속문이 부가어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부가어인 선행절은 주절인 후행절 사건시에 의존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而且...’ 접속문이 부가어 구조 아닌 명시어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판단한다.

‘...而且...’ 접속문에서 ‘而且’가 자신이 속한 절이 아닌 선행절의 서법을 선택제약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19) 哲洙玩遊戲, 而且去夜店。

(철수는 게임을 하거니와 클럽도 간다.)

(20) *哲洙玩遊戲嗎, 而且去夜店。

??哲洙玩遊戲嗎, 而且去夜店嗎?

(??철수는 게임을 하거니와 클럽도 가니?/??철수는 클럽도 가거니와 게임도 하니?)

(21) *哲洙玩遊戲吧, 而且去夜店。

*哲洙玩遊戲吧, 而且去夜店吧!

(*철수는 게임을 하거니와 클럽도 가라!/*철수는 클럽도 가거니와 게임도 해라!)

(22) *我們一起玩遊戲吧, 而且去夜店。

*我們一起玩遊戲吧, 而且去夜店吧!

(*우리 함께 게임을 하거니와 클럽도 가자!/*우리 함께 클럽도 가거

니와 게임도 하자!)

모든 접속문의 선행절이 그 말미에 연결어미를 가지는 한국어와는 달리 중국어에서는 선행절 말미에 의문문, 명령문의 표지가 결합되는 것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21), (22)처럼 명령문, 청유문의 표지 ‘吧’가 선행절에 허용되지 않는 사실은 후행절의 앞머리에 위치하는 ‘而且’가 전체 접속문의 머리성분이 되어 후행절은 물론, 선행절의 서법을 제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의문문인 (20)에서 선행절에 ‘嗎’가 결합되는 경우, 제약적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부적격한 문장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21), (22)에서 선행절에 ‘吧’가 실현되는 것이 배제되는 것은 후행절의 요소 ‘而且’의 선행절 서법에 대한 제약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선행절에 ‘嗎’, ‘吧’가 결합되면 비문이 되고 평서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가 결합되면 자연스럽다. 이러한 결과는 이 구조가 명시어 구조라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중국어 일반적으로 접속문의 선행절에 ‘嗎’라 든지 ‘吧’라 든지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특징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16)-(18)의 증거를 바탕으로 ‘...而且...’ 구문을 명시어 구조 접속문으로 판단한다.

‘...而且...’ 접속문의 통사구조는 대략 (23)과 같다.

(23) 哲洙玩遊戲, 而且去夜店。

(철수는 게임을 하거니와 클럽도 간다.)

(23) [CP[CP 哲洙玩遊戲][C[C 而且][MP 去夜店]]]

‘...而且...’ 접속문에서는 선행절이 명시어가 되고, 후행절은 ‘而且’가 그 오른쪽의 보충어를 취하여 C 범주의 성분이 된다. 다음에서는 선행절 아닌 후행절이 명시어인 접속문도 존재한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2) ‘거든’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

연결어미 ‘-거든’ 문장과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을 살펴보자.

(24) 선생님을 만나거든 메모 좀 전해 주세요.

(要是見到老師, 請把便條轉交給他吧!)

(25) 시험에 통과하거든 우리 축하 파티를 엽시다.

(要是考試通過, 我們開慶祝派對吧!)

이 문장들 보면 ‘-거든’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구문은 ‘要是...’ 형식의 접속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다음으로, 선행절의 후행절 사건시 기준 해석과 관련하여 ‘要是...’ 접속문은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관찰해 보자. 중국어 접속문에서 주절은 후행절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므로, 이를 따라 ‘要是...’ 접속문의 후행절에 ‘昨天’, ‘明天’을 추가해서 시간 해석에 변화를 주어 보기로 한다. (27a), (28a)은 이러한 가정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보인다. 이와 반대로, ‘要是...’ 접속문의 주절은 선행절이라고 가정하고, 선행절에 ‘昨天’, ‘明天’을 추가해서 시간 해석에 변화를 주어 검사한 결과가 (27b), (28b)이다.

(26) 要是你遇見朋友, 把消息告訴他吧!

(친구를 만나거든 이 소식을 전하자!)

(27) a. *要是你遇見朋友, 昨天把消息告訴他(吧)。

(*친구를 만나면 어제 이 소식을 전했다/전해라.)

b. *要是昨天你遇見朋友, 把消息告訴他(吧)。

(어제 친구를 만났으면 이 소식을 전했다/전해라.)

15) 중국어에서 조건 접속문은 ‘要是...’ 형식 외에도 ‘如果...’, ‘假如...’, ‘如果...就...’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다. ‘要是...’ 접속문은 다른 조건 접속문과 달리 후행절이 ‘의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이 점에서 한국어의 ‘-거든’ 접속문과 흡사하다.

- (28) a. 要是你遇見朋友, 明天把消息告訴他(吧).
 (친구를 만나면 내일 이 소식을 전한다/전해라/전하겠다.)
 b. 要是明天你遇見朋友, 把消息告訴他(吧).
 (내일 친구를 만나면 이 소식을 전한다/전해라/전하겠다.)

시간 부사 ‘昨天’을 후행절에 추가한 (27a)나 선행절에 추가한 (27b)는 모두 부적격한 문장이 된다. 여기에서 선행절 또는 후행절의 시간이 다른 절의 시간의 변동에 따라 의존적으로 변동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다. (28a)와 (28b)는 적격한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선행절 또는 후행절의 시간이 다른 절의 시간의 변동에 따라 의존적으로 변동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 해석상의 사실은 ‘要是’가 자신이 속한 절 외의 절, 즉 후행절에 대하여 의도의 의미를 갖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간 해석상의 사실은 ‘要是...’ 접속문이 명시어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이는 증거이다.

‘要是...’ 구문에서 후행절의 서법에 대한 선택제약을 가한다는 점은 다음 예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29) 要是你遇見朋友, 把消息告訴他吧!
 (친구를 만나거든 이 소식을 전하자!)
 (30) 要是你遇見朋友, 把消息告訴他吧!
 (친구를 만나거든 이 소식을 전해라!)
 (31) ?要是你遇見朋友, 把消息告訴他。(평서문의 분석으로)
 (*친구를 만나거든 이 소식을 전한다.)
 (32) ?要是你遇見朋友, 把消息告訴他嗎?
 (*친구를 만나거든 이 소식을 전하느냐?)

‘要是...’ 구문에서는 후행절에 명령문과 청유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吧’

를 결합하면 자연스럽게, 평서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과 의문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嗎’과 결합하면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王振華(2015)에서는 ‘要是’의 사용은 서술자의 강한 주관적 태도나 어떤 대상과 문제에 대한 주관적 의견과 입장, 또는 감정을 표현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要是’가 한국어의 연결어미 ‘-거든’처럼 후행절에 대하여 ‘의도’ 의미를 요구한다고 판단한다. (31), (32)처럼 후행절이 평서문이나 의문문이 되면 어색해지는 것은 이러한 판단을 지지하는 증거이다.

본고는 이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要是...’ 구문이 명시어 구조를 이루는 접속문이라고 판단한다. 그 통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33) 要是你遇見朋友, 把消息告訴他吧!

(친구를 만나거든 이 소식을 전하자!)

(33)' [CP[C[_C 要是][_{IP} 你遇見朋友]][_{MP} 把消息告訴他吧]]

위 ‘...而且...’ 접속문과는 달리 ‘要是...’ 접속문은 후행절 MP가 명시어를 이룬다. 명시어가 선행절에 실현되느냐 후행절에 실현되느냐를 지배하는 X' 이론의 일반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국어에서 명시어가 선행절로 실현되는 3장 1절의 ‘...而且...’ 접속문이 있을 수 있고, 명시어가 후행절로 실현되는 이 절의 ‘要是...’ 접속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3) ‘-는데’, ‘-지만’, ‘-으나’, ‘-지’, ‘-기로서니’, ‘-더니’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

‘-는데’, ‘-지만’, ‘-으나’, ‘-지’, ‘-기로서니’, ‘-더니’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을 다음과 같다. 이들도 3장 2절의 ‘要是...’ 접속문과 같은 명시어 구조 접속문을 형성한다.

(34) 남편은 서울로 떠나는데 아내는 대구로 떠났다.

(雖然丈夫去了首爾, 但是妻子去了大邱。)

(35) 형은 만두를 먹지만 동생은 라면을 먹는다.

(雖然哥哥吃包子, 但是弟弟吃拉麵。)

(36) 동생은 시험에 합격했으나 형은 실패한다.

(雖然弟弟考試合格, 但是哥哥失敗。)

(37) 내가 소주만 안 마시지 맥주나 와인은 마신다.

(雖然我不喝燒酒, 但是喝啤酒或紅酒。)

(38) 내가 밥을 많이 먹기로서니 하루에 6끼를 먹을 수 있겠어요?

(雖然我吃很多飯, 但是一天能吃6頓飯嗎?)

(39) 영호가 전에는 술을 자주 마시더니 요즘은 전혀 안 마신다.

(雖然榮浩之前經常喝酒, 但是最近一點都沒喝。)

이 문장들을 보면 ‘-는데’, ‘-지만’, ‘-으나’, ‘-지’, ‘-기로서니’, ‘-더니’ 접속문은 모두 중국어의 ‘雖然...但是...’ 형식의 접속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¹⁶⁾ ‘雖然...但是...’ 접속문에서 선행절의 후행절 사건시 기준 해석이 가능한지를 검사해 보기로 한다.

(40) 雖然哥哥喝酒, 但是弟弟喝飲料。

(형은 술을 마시지만 동생은 음료를 마신다.)

(41) 雖然哥哥喝酒, 但是昨天弟弟喝了飲料。

(형은 술을 마시지만 동생은 어제 음료를 마셨다.)

(42) ?雖然哥哥喝酒, 但是明天弟弟喝飲料。

(형은 술을 마시지만 동생은 내일 음료를 마신다.)

16) ‘雖然...但是...’ 접속문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중국어 접속문의 형식으로는 ‘雖然...卻...’ 접속문이 더 있다. 후행절의 ‘但是’와 ‘卻’는 접속 부사로 판단한다. 이 접속 부사들에 유무에 따라서는 사소한 의미 차이만 나타난다.

(41), (42)는 ‘雖然...但是...’ 접속문에서 선행절을 동일한 형식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후행절에 시간 부사 ‘昨天’, ‘明天’을 추가하여 그 시간 해석에 변화를 준 것이다. 呂叔湘(1999)에서는 ‘雖然’이 이끄는 선행절은 사실성 사건이라는 점을 논하였다. 趙岩(2021)에서는 ‘雖然...但是...’ 접속문의 선행절 사건은 존재하는 사실이나 이미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 한정된다고 했다. 즉 ‘雖然...但是...’ 접속문의 선행절은 미래의 의미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2)에서 후행절 사건 ‘弟弟喝飲料’에 ‘내일’과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미래 시간 부사 ‘明天’를 부여하더라도 선행절 사건 ‘哥哥喝酒’는 그에 따라 의존적으로 미래 시간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즉 후행절이 과거, 미래의 사건으로 바뀔 때 따라 선행절 사건의 시간이 변동되지 않는다. 이는 (40)-(42)의 ‘雖然...但是...’ 접속문에서 후행절이 주절의 기능을 담당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오히려 (40)-(42) 접속문의 선행절 앞머리에 있는 ‘雖然’이 전체 접속문의 머리성분으로서 후행절 사건의 시간을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雖然...但是...’ 접속문에서의 후행절 서법에 대한 선택제약의 사실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접속문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43) 雖然哥哥喝酒, 但是弟弟喝飲料。
(형은 술을 마시지만 동생은 음료를 마신다.)
- (44) ?雖然哥哥喝酒, 但是弟弟喝飲料嗎?
(?형은 술을 마시지만 동생은 음료를 마시느냐?)
- (45) ?雖然哥哥喝酒, 但是你喝飲料吧!
(형은 술을 마시지만 너는 음료를 마셔라!)
- (46) ?雖然哥哥喝酒, 但是我喝飲料吧!
(형은 술을 마시지만 저는 음료를 마시자!)

‘雖然...但是...’ 접속문에서는 후행절에 평서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만

이 자연스럽다. 명령문과 청유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吧’이나 의문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嗎’와 결합하면 완전한 비문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판정한다. 李瑋曼(2015)에서는 ‘雖然...但是...’ 접속문이 강한 사실성을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사실성을 갖지 않으므로 ‘雖然...但是...’ 접속문과 충돌을 일으킨다. 이 접속문의 이러한 사실은 ‘雖然’을 전체 접속문의 머리성분으로 가정하면 잘 설명할 수 있다. 선행절에 놓이는 머리성분 ‘雖然’은 명시어인 후행절의 서법이 평서법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상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雖然...但是...’ 구문이 명시어 구조를 이루는 접속문이라고 판단한다. 그 통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47) 雖然哥哥喝酒, 但是弟弟喝飲料。

(형은 술을 마시지만 동생은 음료를 마신다.)

(47) [CP[C[_C 雖然][IP 哥哥喝酒]][MP 但是弟弟喝飲料]]

‘雖然...但是...’ 접속문은 위 ‘要是...’ 접속문과 같이, 그리고 ‘...而且...’ 접속문과는 달리, 후행절 MP가 명시어를 이룬다. 이 사실은 중국어 접속문이 가지는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본다.

4) ‘-은들’, ‘-더라도’, ‘-을지라도’, ‘-을망정’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

위에서 제시한 세 구문들과는 달리 ‘-은들’, ‘-더라도’, ‘-을지라도’, ‘-을망정’, ‘-기에’, ‘-더니²⁾’, ‘-자’, ‘-기를’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들은 선행절을 부가어로 가지는,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는 것이 이하에서 서술할 점이다.

‘-은들’, ‘-더라도’, ‘-을지라도’, ‘-을망정’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48) 그는 병원에 입원한들 지금으로서는 가망이 없다.

(即使他住院了, 現在看來也沒有希望。)

(49) 내가 무슨 업무가 있더라도 올해 안으로 여행을 가야 한다.

(即使我有什麼業務, 今年也要去旅行。)

(50) 내가 시련이 많이 있을지라도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

(即使我有很多考驗, 也要繼續努力。)

(51) 내가 가난할망정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간다.

(即使我窮, 也一年去一次旅行。)

이 문장들 통해서 ‘-은들’, ‘-더라도’, ‘-을지라도’, ‘-을망정’ 접속문은 모두 중국어의 ‘即使...也...’ 접속문으로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⁷⁾

‘即使...也...’ 접속문에서 선행절의 후행절 사건시 기준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사해 보기로 한다.

(52) 即使他們不幫忙, 我們也能把麥子收完。

(그들은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밭을 수확할 수 있다。)

(53) 即使他們不幫忙, 我們昨天也能把麥子收完。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어도 우리가 어제 밭을 수확할 수 있었다。)

(54) 即使他們不幫忙, 我們明天也能把麥子收完。

(그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내일 밭을 수확할 수 있겠다。)

‘即使...也...’ 접속문의 선행절이 동일한 상태에서 후행절에 시간 부사 ‘昨天’, ‘明天’을 도입하여 그 시간 해석에 변화를 주었다. ‘即使...也...’ 접속문은

17) 중국어에서는 ‘即使...也...’와 같이 양보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접속문으로는 ‘縱然...也...’, ‘假使...也...’, ‘即便...也...’과 같은 형식들이 있다. 이들도 모두 ‘即使...也...’ 접속문과 같이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고 본다.

앞의 ‘雖然...但是...’ 접속문과 달리 선행절 사건의 시간이 후행절 사건의 시간에 의존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即使...也...’ 접속문에서 후행절의 서법에 대한 선택제약이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 (55) 即使他們不幫忙, 我們也能把麥子收完。
(그들은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밀을 수확할 수 있다.)
- (56) 即使他們不幫忙, 我們也能把麥子收完嗎?
(그들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밀을 수확할 수 있나?)
- (57) 即使他們不幫忙, 我們也能把麥子收完吧!
(그들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밀을 수확할 수 있겠지!)
- (58) 即使他們不幫忙, 我們也一起把麥子收完吧!
(그들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밀을 수확하자!)

‘即使...也...’ 접속문에서 후행절에 명령문과 청유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吧’이나 평서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이나 의문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嗎’과 결합하면 모두 자연스럽다. 즉 ‘即使...也...’ 접속문에는 후행절의 서법에 대한 선택제약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은 ‘即使...也...’ 접속문이 명시어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5) ‘-기에’, ‘-더니²’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

연결어미 ‘-기에’, ‘-더니²’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구문은 다음과 같다.

- (59) 제품의 상태가 좋아 보이기에 구입하기로 했다.
(因為產品狀態看起來很好, 所以決定購買了。)
- (60) 날씨가 덥기에 창문을 열었다.

(因爲天氣熱, 所以打開了窗戶。)

(61) 영호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장학금을 탔어요.

(因爲榮浩努力學習, 所以獲得了獎學金。)

(62) 철수가 밤을 새워 일했더니 피곤해요.

(因爲哲洙熬夜工作, 所以很累。)

이 예문들을 통하여 ‘-기에’, ‘-더니’²⁾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구문은 ‘因爲...所以...’ 접속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因爲...所以...’ 접속문에서 선행절의 후행절 사건시 기준 해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63) 因爲下雨, 所以他坐汽車離開了。

(비가 와서 그가 기차로 떠난다.)

(64) 因爲下雨, 所以他昨天坐汽車離開了。

(비가 와서 그가 기차로 떠났다.)

(65) 因爲下雨, 所以他明天要坐汽車離開。

(비가 와서 그가 기차로 떠날 것이다.)

(64)-(65)에서는 선행절이 현재인 상황에서 후행절의 시간 표현들을 달리 해 본 것으로 선행절에 ‘-었-’, ‘-겠-’과 대응되는 시간 요소 ‘昨天’, ‘明天’으로 각각 그 시간 해석에 변화를 주었다. (64)에서는 후행절 사건 ‘他坐汽車離開’에서 과거 의미를 표현하는 ‘昨天’를 첨가하면 선행절 사건 ‘下雨’도 과거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5)에서도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因爲...所以...’ 접속문의 선행절이 후행절의 시간 해석에 따라 의

18) 중국어에서는 ‘因爲...所以...’와 같이 인과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접속문으로는 “由於...所以...”, ‘結果...所以...’과 같은 형식들이 있다. 이들도 모두 ‘因爲...所以...’ 접속문과 같이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고 본다.

존적으로 변동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因爲...所以...’ 접속문이 부가어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한다.

‘因爲...所以...’ 접속문에서 후행절의 서법에 대한 선택제약이 존재하는지 검토해 보자.

(66) 因爲下雨, 所以他坐汽車離開了。

(비가 와서 그가 기차로 떠났다.)

(67) 因爲下雨, 所以你坐汽車離開了嗎?

(비가 와서 그가 기차로 떠났나?)

(68) 因爲下雨, 所以你坐汽車離開吧!

(?비가 와서 네가 기차로 떠나라!)

(69) 因爲下雨, 所以我們坐汽車離開吧!

(?비가 와서 우리가 기차로 떠나자!)

위 예문들에서 중국어의 ‘因爲...所以...’ 접속문은 후행절에 명령문과 청유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吧’를 결합하면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문법적이고, 평서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이나 의문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嗎’과 결합하면 아주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⁹⁾ 그 이유는 청유문과 명령문의 의미가 ‘因爲...所以...’ 접속문의 인과 관계 의미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선행절이 후행절 시간 해석에 따라 의존적으로 변동하는 위의 사실을 통해 ‘因爲...所以...’ 접속문이 명시어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고 판단한다.

19) 한국어 번역문은 부적격한데, 이는 한국어 ‘-어서’ 연결어미 문장이 가지는 특별한 제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정석(2014)에서는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서’ 접속문은, 다른 용법의 ‘-어서’ 접속문과는 달리, 부가어 구조를 유지한 채 구문규칙에 따라 그 의미 해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6) ‘-자’, ‘-기를’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

‘-자’, ‘-기를’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70) 저는 집에 오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
(我回到家, 開始下雨了。)
- (71)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갔다.
(下課, 學生們離開了教室。)
- (72)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일이면 끝난다고 했다.
(那個人說, 相信到了明天就結束。)
- (73) 그가 부탁하기를, 나더러 꼭 와 달라고 했다.
(那個人拜託, 就算只有我也一定要來。)

이상의 문장을 보면 ‘-자’ 접속문, ‘-기를’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의 전형적인 구문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접속문은 중국어에서 접속사나 접속 부사를 갖지 않는, 무표지 접속문으로 표현된다.²⁰⁾ ‘-기를’ 접속문은 중국어에서 후행절의 내용을 보문으로 가지는 ‘보충어 구조’의 구문으로 대응·표현된다.

(70)의 ‘-자’ 접속문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무표지 접속문만을 대상으로, 선행절이 후행절 사건시 기준 해석을 받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 (74) 我回到家, 洗了手。
(저는 집에 오자 손을 씻는다.)
- (75) 我回到家, 昨天洗了手。

20) 중국어학계에서는 선행절 또는 후행절의 앞머리에 나타나는 접속사나 접속 부사를 ‘관련사어’라고 지칭해 왔는데, 본고는 이러한 요소들을 전혀 갖지 않는 접속문을 ‘무표지 접속문’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나는 집에 와서 어제 손을 씻었다.)

(76) 我回到家, 明天洗手。

(저는 집에 오면 내일 손을 씻을 것이다.)

중국어의 무표지 접속문에서 후행절에 ‘昨天’, ‘明天’을 추가하여 그 시간 해석에 변화를 주었다. (75), (76)는 후행절 사건시가 과거, 미래로 변동함에 따라 선행절의 시간도 의존적으로 변동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위 무표지 접속문은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고 판단한다.

중국어의 위 무표지 접속문에서 선행절 또는 후행절의 서법이 제약되는지를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하여 검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절의 연결어미가 언제나 실현되어야 하는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의 무표지 접속문은 접속 요소가 공범주이기 때문에 접속문의 머리성분이 선행절에 있는지, 후행절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본고는 위 (74)-(76)의 증거를 바탕으로 선행절이 부가어라고 판단하기로 한다.

(77) 我回到家, 洗了手。

(저는 집에 오자 손을 씻었다.)

(78) ?我回到家, 洗了手嗎?

(저는 집에 오면 손을 씻었나?)

(79) *我回到家, 洗了手吧!

(*저는 집에 오면 손을 씻어라!)

(80) *我回到家, 洗了手吧!

(*저는 집에 오면 손을 씻자!)

이상의 논증을 통해 중국어의 무표지 접속문은 명시어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마무리

본고에서는 명시어 구조를 이루는 연결어미 ‘-거든, -거니와, -자, -더니, -는데, -지만, -으나, -기를, -기에, -은들, -더라도, -을지라도, -을망정, -기로서니, -지’ 등이 형성하는 한국어 접속문과 이들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 표현들을 검토하였다. 이들 접속문 선행절의 후행절 사건시 기준 해석이 가능한지, 후행절 또는 선행절의 서법에 대한 선택제약의 사실이 있는지를 통사적 검증 방법으로 사용하여 한국어 명시어 구조 접속문들을 확인하고, 중국어에서 이와 대응되는 접속문의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이 결과 중국어에 명시어 구조를 이루는 ‘...而且...’ 접속문, ‘要是...’ 접속문, ‘雖然...但是...’ 접속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而且...’ 접속문은 한국어의 ‘-거니와’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의 접속문이고, ‘要是...’ 접속문은 한국어의 ‘-거든’ 연결어미 문장과 대응되는 중국어의 접속문이고, ‘雖然...但是...’ 접속문은 한국어의 ‘-는데’, ‘-지만’, ‘-으나’, ‘-지’, ‘-기로서니’, ‘-더니’ 연결어미 문장과 대응되는 중국어의 접속문이다. 이 세 유형의 접속문에 대해서 양정석(2010a)에서 제시한 두 가지 검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이 명시어 구조를 이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국어에서 명시어 구조를 이루는 ‘-기에’ 접속문, ‘-더니’²⁾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인 ‘因爲...所以...’ 접속문, ‘-은들’, ‘-더라도’, ‘-을지라도’, ‘-을망정’ 연결어미 문장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인 ‘即使...也...’ 접속문은 명시어 구조를 이루지 않고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 ‘-자’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도 접속문의 표지를 갖지 않는 무표지 접속문으로서, 역시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

이상의 연구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에도 명시어 구조라는 접속문의 한 통사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한 통사적 검증 방법을 통해 증명한 의미가 있다. 이 검증 방법들을 다른 중국어 접속문에 확대 적용하는 연구를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參考文獻

- 김영희, 「등위 접속문의 통사 특성」, 『한글』 201-202집, 한글학회, 1988.
- 남기심, 「접속어미와 부사형 어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0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985.
- 서퇴, 「한국어와 중국어의 서법에 관한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서정수,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I)-대등접속어미」, 『한글』 189집, 한글학회, 1985.
- 양정석, 『한국어 통사 구조론(개정판)』, 서울: 한국문화사, 2010a.
- 양정석, 『한국어 통사구조와 시간 해석』, 서울: 한국문화사, 2010b.
- 양정석, 「대응규칙 체계로서의 현대국어 형식문법」, 『배달말』 55집, 배달말학회, 2014.
- 이기갑, 「의도 구문의 인칭 제약」, 『한글』 196집, 한글학회, 1987.
- 임홍빈·장소원, 『국어문법론 I』,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5.
-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1937/1971.
- 陳平, 『現代語言學研究: 理論, 方法與事實』, 重慶: 重慶出版社, 1985.
- 丁樹聲 等, 『現代漢語語法講話』, 北京: 商務印書館, 1952/1999.
- 鄧守信, 『漢語語法論文集-中譯本』,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7.
- 鄧思穎, 『形式漢語句法學(第二版)』,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19.
- 胡建華, 「否定, 焦點與轄域」, 『中國語文』 第2期,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2007.
- 何元建, 『現代漢語生成語法』,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北京: 商務印書館, 1924/1992.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1999.
- 呂叔湘·朱德熙, 『語法修辭講話』 上海: 開明書店, 1952.
- 李瑋曼, 「現代漢語‘雖然 A, 但是 B’與‘即使 A, 也 B’句式比較」, 陝西理工大學碩士學位論文, 2015.

- 劉月華·潘文娛·故韡,『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北京:商務印書館,2001.
- 林裕文,『偏正複句』,上海:上海教育出版社,1962/1987.
- 沈開木,「‘不’字的否定範圍和否定中心的探索」,『中國語文』第4期,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1984.
- 王力,『中國現代語法』,北京:商務印書館,1943/1985.
- 王振華,「連詞‘要是’的語義以及篇章分析」,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15.
- 邢福義,『漢語複句研究』,北京:商務印書館,2001.
- 袁毓林,「論否定句的焦點,預設和轄域歧義」,『中國語文』第2期,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2000.
- 趙岩,「現代漢語轉折關係範疇研究」,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2021.
- Chomsky,N, Barriers, MIT, 1986.

Abstract

A Contrastive study on conjunctive sent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with special attention to 'Spec Construction'

Tan Hongda

'Spec Construction' is a construction with a specifier(Spec) phrase and X' in X-bar theoretical terms. In this paper, I examine Chinese conjunctive sentences corresponding to Korean conjunctive sentences with '-geodeun, -geoniwa, -ja, -deoni, -neunde, -jiman, -euna, -gireul, -gie, -eundeul, -deorado, -euljirado, -eulmangjeong, -gireoseoni, -ji' which were characterized as 'Spec Constructions' by Yang(2010a). I find that there exist three types of 'Spec Constructions' in Chinese conjunctive sentences, which are '...erqie...' sentences, 'yaoshi...' sentences and 'suiran...danshi...' sentences. And there also exist three types of 'Adjunct Constructions' in Chinese conjunctive sentences. Among Chinese conjunctive sentences corresponding to the Korean conjunctive sentences with the conjunctive endings considered in this paper, are 'yinwei...suoyi...' sentences, 'jishi...ye...' sentences, and marker-less conjunctive sentences, i.e., sentences without conjunctive words.

Key words : conjunctive sentences, Adjunct Constructions, Spec Constructions, '...erqie...' sentence, 'yaoshi...' sentence, 'suiran...danshi...' sentence, 'yinwei...suoyi...' sentence, 'jishi...ye...' sentence, marker-less conjunctive sentences.

투 고 일 : 2022. 10. 10. / 심 사 일 : 2022. 10. 15. ~ 2022. 11. 15. / 게재확정일 : 2022. 11. 20.